

도심 꽃·나무 장식...정읍시 '향기도시'로 변한다

황금달맞이꽃·꽃향유·덩굴장미 등 심어 사계절 향기·매력 넘치는 힐링도시
시민정원·향기정원 조성...직영 꽃묘장도 운영 새로운 관광명소 자리매김

대한민국 대표 '향기도시'를 표방한 정읍시가 향기 나는 꽃과 나무로 도시를 장식하고 있다.

23일 정읍시에 따르면 각종 나무와 풀, 꽃 등에서 나는 자연의 향기를 주요 도심지 녹지공간에서 느끼고 향유할 수 있도록 사계절 향기와 매력이 넘쳐나는 힐링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식물은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 눈높이(1.5m) 이하 관목 위주로 선택하고 바람 또는 접촉에 의한 향기 체험이 가능하도록 무리를 지어 식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꽃길인 상동 어린이교통공원부터 문화광장 자전거 도로변이다. 정읍시는 내장호와 도심에 있는 하천인 정읍천 주변 자전거 도로변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황금 달맞이꽃 7만3500본과 꽃향유 11만5800본, 터널 구간에는 덩굴장미 860본을 식재했다.

황금 달맞이꽃은 '무연의 사랑'이란 꽃말이 정읍시 여인의 천년의 기다림과 지고지순한 사랑과 어울려 심게 됐다. 바깥쪽에는 다년생 야생화인 꽃향유를 심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견고 있는 산책길과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읍시는 충청로와 상동 도시계획도로에 산재한

가로화단을 입체감 있는 띠늑지 형태로 재정비하고 향기 식물을 식재해 향기 거리를 조성했다. 기존 가로화단 자리에 입체감 있는 3단 풀 플랜트에 페튜니아 웨이브를 식재해 거리에 화려함을 더했고, 플랜트 박스에는 왜성 라일락과 아스타 바이올렛 등을 심어 가을까지 계속되는 꽃향기를 느낄 수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향기 나는 시민정원도 조성한다.

정읍시는 마을공동체 의식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활권 내 공동 정원을 조성·관리함으로써 사계절 에너지와 생기가 넘치는 꽃이 만발한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마을 공유지 등 주민 이용도가 높은 공간에 향기 나는 꽃과 나무를 심어 함께 가꾸는 향기정원을 만들어 주민 간 친밀도를 높이고 주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읍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영 꽃묘장 운영을 통해 향기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쌍암동에 466㎡ 규모로 향기 온실을 조성할 예



산책 나온 한 시민이 정읍천 주변에 심어진 보라색 '꽃향유'의 향기를 맡으며 여가를 즐기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관계지는 "향기"를 주제로 힐링과 치유를 산업화하고 향기 산업을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 가기 위한 첫 걸음인 향기 나는 꽃과 나무를 심는 일이다"고 밝혔다.

정읍시 관계자는 "향기"를 주제로 힐링과 치유

익산 햇배 수출 활기 농가 효자작목 '톡톡'

올해 캐나다·대만 등 600여t

익산 배가 활발한 수출로 농가 효자작목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처음 수확한 조생종 햇배 '원황'의 본격적인 출하와 함께 캐나다, 대만, 베트남 등에 600여t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명품 익산 배 수출을 위해 지난 6일 참여 농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을 초빙해 배 수출 검역요건과 병해충 방제 교육을 시행했다.

주로 금마면과 남산·삼기면 일대에서 재배되는 익산 배는 79 농가 69ha에서 연간 1964t 정도 생산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원황', '화산' 등 국내 육성 품종을 다른 지역에 비해 선도적으로 재배해 수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배를 수출 전략 품목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온 농업기술센터는 해충 정밀예찰을 통한 적기방제와 철저한 재배기술 교육을 시행해 수출 상대국에서 가장 요구하는 안전성과 위해 물질 차단 등을 대비해왔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익산형 먹거리전략 구축 속도

익산형 푸드플랜 컨트롤타워 역할

'(재)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익산시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 자원을 지역 내에서 가공, 유통, 소비까지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먹거리 공급시스템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익산형 푸드플랜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형 푸드플랜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재)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공공의 관점에서 익산의 먹거리 전략 사업을 총괄적으로 실행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로컬푸드와 학교·공공급식에 지역 식재료 공급체계를 확대하고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시는 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설립 심의 과정 등을 거쳐 하반기에 운영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운영주체 설립에 착수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푸드플랜 수립용역'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1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시민이 행복한 익산시 미래먹거리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6대 전략, 10개 전략과제, 72개의 세부사업이 제안됐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창군, 쾌적한 도시 만들기 2030경관계획 주민공청회

고창군은 지난 20일 고창읍사무소에서 주민,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 경관계획(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군 경관이 지향하는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경관기분구상, 경관기본계획 등 경관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밑그림이 제시됐다.

용역 보고에서는 군 경관계획(안)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계획의 기본구상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안 ▲경관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등에 대한 용역사의 자세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조순대 정지석 교수를 좌장으로, 전주대 정철모 교수, 전남대 권운구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열린 토론회를 펼쳤고 참석 주민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 시가지, 농어촌 등 우수한 경관은 보존하고 훼손된 경관은 개선해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군의회 의결 청취 후 경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종안 확정 공고하고 각종 개발사업 경관심사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모든 시민에 긴급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남원시는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일부터 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주소를 남원에 두고 있는 시민이다. 외국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사용 기

한이 이달 말로 만료되면서 지역경제가 다시 침체할 것으로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소아당뇨 가정 '당뇨꾸러미 바른밥상 실천교육' 건강한 여름나기

순창군, 제철 친환경농산물·치유음식으로 면역력 키우기

순창군이 '당뇨꾸러미(사진) 바른 밥상 실천교육'을 추진해 건강한 여름나기에 앞장서고 있다.

당뇨 꾸러미 바른 밥상 실천교육은 소아 당뇨 가정을 대상으로 집에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비대면 식생활 교육이다.

순창군은 지난 5월 1차 꾸러미 교육에 이어 이번 2차 '당뇨꾸러미 바른 밥상 실천교육'을 실시한다. 2차 꾸러미는 '당뇨꾸러미'와 '면역력 강화 음식', '바른 식생활 교육자료' 등 총 3가지 아이템으로 구성해 각 가정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식생활 교육의 취지를 살려 식품의 생산부터 조리, 섭취까지 일련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레시피와 함께 내실있는 교육이 특징이다.

소아 당뇨인에게는 혈당 완화를, 군민들에게는 농산물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가 활성

화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순창군이 가장 중점을 둔 '당뇨꾸러미'는 순창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해 무농약 인증을 받은 유정란, 청국장 순집, 고구마순, 표고가루, 들깨가루, 들기름, 토종꾸러미 등 총 7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순창쌀이 모임을 순창의 사라재가는 고유 씨앗을 지키기 위해 씨앗을 모아 증식하고 나누는 농부들의 모임으로 토종종자를 활용한 토종꾸러미(순창쌀, 팥, 콩, 토종오이, 키작은 강낭콩, 녹두, 서리태, 갓콩, 찹쌀, 칠성초, 고추)로 구성된 아이들에게 자연에서 오는 토종 식재료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면역력 강화 음식'은 치유음식의 대가 김영희 대표가 엄선한 재료(대두, 서리태, 검은깨, 현미찰, 쌀 등)로 만든 건강한 선식을 활용해 아침대용 및



간식으로 좋은 선식음료, 화학적첨가물이 없는 천연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해 소아당뇨 가정의 바른밥상 실천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순창군은 '당뇨꾸러미 바른밥상 실천교육'을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하반기엔 꾸러미 규모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